

기독교 정치관 소고

허문영

이 글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를 규명하고, 어떻게 성경적 정치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필자는 오늘의 한국 정치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 및 대안을 연구 제시하고 싶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우리가 정치의 혼란시대 또는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사회의 변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페레스트로이카 :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 노보예프이슬래예: 신사고)과 이에 따른 미·소간의 신 데탕트, 중·소 화해, 동구권의 급속한 민주적·자유적 개혁, 유럽 통합의 진전, 한국의 북방 정책과 북한·중국의 밀착 등 급속하고도 착잡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거대 보수 여당인 민자당의 출범 및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의 팽배(계층, 계급간, 지역간, 세대간 등)등 여러 정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 현실에 대

한 성경적 이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할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사회 변혁을 위한 이른바 진보적 운동 논리에 대하여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의 비판적 연구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진보적 학술 연구의 특징은 ①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의 과감한 수용, ② 민중적·민주적 변혁적 시각의 중시, ③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지형'(ideological terrain)의 창출을 들 수 있다.¹⁾ 이에 대한 기독교 정치학의 대응은 ① 성경적 세계관(Biblical World View)의 과감한 수용, ② 하나님 중심적 시각의 중시, ③ 세속적 이데올로기(우상)를 타파할 수 있는 "성경적 정치학"의 창출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필자의 역량 부족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경적 정치관에 대한 선행연구의 미비로 이 기초 작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에 지극히 작은 벽돌 하나라도 헌물하고픈 마음으로 이 연구에 착수한다.

I.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정치관 유형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의 보편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복음과 정치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을 다섯가지로 도식화 하고자 한다.²⁾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의 정치인식 태도를 세가지 유형으로 간략히 분류한다.

1) 조희연, "한국 현대사회의 성격과 학술연구자의 과제", 「역사비평」, 1988 봄, pp.41~54.

2) Chaplin, Jonathan, "The Gospel and Politics: Five Positions" (Toronto: ICS unpublished paper, 1985)

1) 이론적 차원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복음과 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첫째, '정치와 대립하는 복음'(The Gospel against Politics)으로서, 정부와 군대에 관여하는 것을 악으로 보던 초기의 '재침례파(Anabaptists)'의 견해이다.

이들은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구별하며, 전자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것이며, 후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동참할 수 있는 선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영역(정치)에 관여하는 대신 선교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이들은 믿는다.

둘째, '정치와 긴장관계 속에 있는 복음'(The Gospel in Tension with Politics)으로서,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으로 분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이 양자에 모두 연속·동참해야함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양 영역에 동시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 사이에서 예수님의 재림때까지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세속

채플린(J. Chaplin)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서 정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니버(H. R. Niebuhr)와 올타이스(J. Olthuis)의 관점을 원용하여 5가지로 나눈다.

즉, 니버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로 구분한다. 올타이스는 극우파(Extreme Right Bank), 온건우파(Moderate Right Bank), 온건좌파(Moderate Left Bank), 극좌파(Extreme Left Bank), 성경적 입장(The Biblical Witness)으로 구분한다.

적(정치적) 영역의 윤리는 정의(Justice)이고, 영적(하나님 나라) 영역의 윤리는 사랑(Love)으로서 각 영역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며, 별개의 윤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는다. 따라서 정치를 사람이 지배하는 죄의 영역으로 여기는 점에서 첫 번째 입장과 같으나,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정치참여는 선교와 무관하거나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정치 위의 복음'(The Gospel above Politics)으로서, 카톨릭의 전통적인 입장이다.

이 입장은 창조세계를 두 영역[영원(the Eternal)과 시간(the Temporary), 또는 은혜(Grace)와 자연(Nature)]으로 구분하며, 전자(영원·은혜 : 초자연의 세계)의 영역이 후자(시간·자연 : 물질 및 인간 세계) 보다 우월한 영역이라고 본다.³⁾ 이 두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속함을 인정한다. 타락은 은혜의 영역(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쳤고, 자연의 영역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연은 타락사건 이후에도 선한 것이고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도 선한 것이 된다. 구속도 은혜의 영역에만 효력이 있어서 상실된 은사(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만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 회복된 은혜의 영역이 자연의 영역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은혜의 영역을 인도하는 교회에 의해 자연의 영역 중의 하나인 정치도 인도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시민권'(dual citizenship)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입장과 동일하나, 두 영역 사이가 긴장관계가 아닌 지도관계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3) 전자는 어거스틴(St. Augustine)의 입장이고, 후자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입장이다.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왈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IVP. 황영철 역) pp.135~143. 참조

넷째, '정치를 정당화하는 복음'(The Gospel Baptizes Politics)으로서, 소위 시민종교(civil religion)의 입장이다.

복음이 세속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정부의 최악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복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인종분리 정책을 정당화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기독교 입장,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하는 19세기 영국에서의 교회 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 입장은 여타 입장들이 정치에 대한 복음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복음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 제도나 세속적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자본주의, 식민주의 등)와 동일시 하며, 이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한다. 이 입장은 '타락'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락'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는 첫번째 입장과 상반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정치를 변혁시키는 복음'(The Gospel Transforms Politics)으로서, Abraham Kuyper 등이 제창한 신 칼빈주의(Neo Calvinism)입장이다.

이 관점은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등에 관해 가장 일관되게 설명한다. 세속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의 이원론적 분리는 사라지고, 삶의 전영역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입장은 정치를 하나님의 창조구조(질서)에 의거한 것으로 인정한 점에서 첫번째, 두번째 입장과 구별된다. 동시에 타락(죄의 결과)이 정치의 영역을 심하게 왜곡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에서 세번째, 네번째 입장과 구별된다. 그리고 구속은 인간 문화의 전영역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고 믿는다.

2) 실제적 차원

정치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인식태도는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⁴⁾ 첫째, 세속적인 정치문제에 기독교인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태도이다. 둘째, 정치문제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야 한다는 태도이다. 셋째, 정치문제는 민주주체적(계급론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들 각각의 태도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예수님의 전 우주적 구속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다.

II. 왜곡된 정치관의 원인들

그러면 왜 이러한 왜곡된 또는 다양한 정치관들이 나타났는가? 이 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인식 태도의 원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 차원에서는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며, 실제적 차원에서는 한국 보수교회의 탈 사회화 과정과 진보교회의 하나님 나라와 이세상 나라와의 동일화 과정(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건설) 때문이다.

1) 이론적 차원

먼저, 복음과 정치에 대한 분리론적 관점의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정치의 본질과 기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다.⁵⁾ 다시말해 정치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도 존재했

4) 줄고, 「통일소고」(대구: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89), pp.1~2.

5) cf. Richard Mouw, *Politics and the Biblical Drama* (Grand Rapids:Bak-

있는가? 아니면 타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긴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창조계획 속에 이미 내포된 것이었는가? 등에 대한 대답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클라크(Gordon H. Clark)는 타락 이전에 정부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악한 인간들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요더(John Howard Yoder)로 대표되는 재침례파는 오늘날 정치 행위의 지배적인 특징인 조작과 억압의 패턴이 죄로 인하여 야기된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치는 타락 이후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클라크나 요더를 따르게 되면, 정치는 악한 것이므로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본래 창조 질서의 일부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죄가 존속하는 동안만 존속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시적인 정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이원론(Dualism)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⁶⁾ 세계관(World View)은 생활양식(Way of Life)이나 문화(Culture)로 구체화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는 이원론에 영향받은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다. 여기서 이원론이란 창조의 일부분을 그 자체로서 악으로 간주하고(예:음식, 결혼, 신체, 정치 및 사회생활) 창조의 다른 부분은 그 자체로서 선이라고(예:영혼, 교회생활) 생각하는 것이

er Book House, 1983) pp.21~54.

6) cf. Richard Middleton, Brian Walsh, (1984),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역(서울 : IVP, 1987) pp.113~182.

다. 결국 이원론은 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소위 악한 이 세상을 등지고 소위 선한 저 하늘만 바라보게 만든다. 따라서 정치를 죄악시하거나, 정치참여에 무관심하도록 만든 것이다.

셋째, 자연/은총의 이분법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⁷⁾ 스토키(Alan Stokey)는 이 이분법이 내세지향적인 성경해석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로 정치적 행동은 배제되게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연/은총의 이분법은 삶의 영역을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과 '자연'에 종속되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영역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또는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국가는 "세속적" 혹은 "정치적인" 영역을 지배한다는 일종의 영역 분할의 계약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란 어찌하였든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다.

다음, 복음과 정치에 대한 일치론적 관점의 원인을 살펴보자.

첫째, 영지주의(Gnosticism) 때문이라 할 수 있다.⁸⁾ 영지주의에 의하면, 물질이란 영원토록 완전히 악한 것이다. 가시적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은 악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죽음의 덫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인간은 선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지식(gnosis)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영지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은 악한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7) Alan Storkey, "기독교국가관", 황영철 편저, 「그리스도인의 현실 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나비, 1988) pp.113~117.

8) James Skillen,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인의 정치행동", 황영철 편저, 앞의 책, pp.93~98.

는 길을 제공하는 분으로만 제한되고, 그리스도인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감옥에서 체류하는 영적인 나그네(sojourner)가 된다. 이 잘못된 세계관과 인간관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침묵주의(Quietism: 이 세상 삶에 대한 절망적 태도)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주의 같은 운동에 의하여 대표되는 '세속적' 행동주의(Activism: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이상사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태도)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20 세기에는 이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적 침묵주의에서 기독교적 행동주의로, 세속적 행동주의에서 세속적 침묵주의로 반전이 일어났다.

둘째, 혼합화(synthesis)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⁹⁾ 도이 베이트트(Herman Dooyeweerd)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정치적 입장이 다양한 이유는 "기독교가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연유하는 그시대의 운동과 거대한 결혼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독특한 입장 및 인생관을 기꺼이 비기독교적인 입장 및 견해(플라톤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영지주의, 근대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와 혼합시키려 했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가 이땅에서의 기독교적 문화 소명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게 되거나, 비기독교적 사상(예를들면 마르크스주의)의 전제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고려없이 그의 방법론을 수용함으로써 결국 비성경적 입장과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⁰⁾ 리델보스(Hermann Ridderbos)

9) James Skillen, "Toward an understanding of politics and government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William A. Harper, Theodore R. Malloch, (ed.) 『Where Are We Now, (Washington D. C.: Univ. Press of America:1981』 p.157에서 재인용

10) Herman Ridderbos,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기

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형태를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공동체적 사회질서로 보는 입장은 결국 기독교적 행동주의인 '사회복음주의'로 귀착되고, 순전한 미래의 일로 보는 입장은 결국 현실도피적이 된다.

2) 실제적 차원

다음은 실제적 차원에서 검토해보자. 한국 개신교회는 1884년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 세워졌다. 이들 선교사들은 대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비간섭 원칙적인 근본주의적 보수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때문에 교회의 정치 불간섭을 강력히 내세웠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한말(韓末)의 엘리트 계층들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기독교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서재필, 윤치호 등의 독립신문 발간 및 만민공동회 개최, 교육 및 의료사업 전개). 따라서 개신교 초기부터 정교분리(政教分離)와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사상적 복합 현상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 이후 1907년 평양 부흥 대성회를 기점으로 한 놀라운 성령운동과 끊임없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축적된 역량의 결합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이후 한국 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받아 비정치적인 기독교, 사회와 유리되는 기독교, 하나님과 세상의 일을 분리하는 소극적인 기독교, 내세구원의 신비주의적 기독교로 변화되어 갔다. 그 결과 일부교회와 신자들은 사후 천당만을 강조하며 심령부흥과 대중전도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적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교회는 일

대의 수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일제에 의한 신사참배 강요였다. 1935년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한국교회에 가해졌다. 드디어는 장로교 마저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열린 제27차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임을 가결하여 기독교의 탈사회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탈역사화 탈사회화 과정에 대한 일대 회개 운동을 통해 큰 전환을 성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친일파 목사의 독선과 친일파 목사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총회적 차원의 문서적 반성이 없이 넘어가 회개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승만 장로의 대통령 피선과 제헌의회에서의 기도로 시작된 제1공화국은 정교 유착으로 인하여 교회의 선지자적 자세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연이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등장과 그에 대한 교회의 두려움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탈사회화를 더욱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기독교계 일각에서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저항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여 탈사회화된 복음을 탈피하여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적인 한국교회의 사회 현실문제에 대한 외면은 아직도 상당하다. 또한 그에 반발하여 나타난 진보주의적인 교회들의 계급론적 민중 지향성 또한 문제가 된다.¹¹⁾ 결국 한국 기독교인의 왜곡된 정치적 태도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선교사의 근본주의적 보수 신앙, 일제의 탄압,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 분단상황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억압, 소외계층에 대한 무관심

11) cf. 박아론 교수는 민중신학의 역사적 발단으로 70년대 한국에서의 정치적 독재와 대중적 빈곤의 상황을 든다. 민중신학의 특이성으로 '신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한'을 정치적·경

등에 의해 틀지워졌다고 하겠다.

Ⅲ.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관 정립 방안과 몇가지 제안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관은 어떻게 정립이 가능할 것인가?

앞장에서 지적한 바 있는 왜곡된 정치태도의 원인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 바로 정립하면 될 것이다. 요컨대,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영지주의적 이원론과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리스도인 정치관이 나왔던 것이다. 동시에 실천적(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왜곡된 정치관이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정치인식 태도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 입각할 때 정립될 것이고, 고난과 유혹을 극복할 때 견지될 수 있다.

1)이론적 차원

첫째, 정치의 본질과 기원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다양한 인간활동 및 제도가 죄 이후에 나타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창 4:16-24). 따라서 정치와 법이 죄 때문에 필요하게 된 것이

계적으로 풀어주려는 신학임을 든다.

박아론, “민중신학에 대한 고찰과 연구” 『신학지남』 221호(1989, 가을) pp.14~17.

라고 결론 짓는다. 이런 입장은 국가에 대하여 정의를 촉진하는 적극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소극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 모든 다양한 인간활동이 죄 이후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인류 최초의 시(詩)인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다……”(창2:23)는 타락 이전에 이루어진 문화활동이고, 또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준 것은 고도의 문화활동이라고 보겠다. 그런 점에서 모든 문화는 타락 이후에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② 창세기 1,2 장에는 정치제도에 관한 언급은 분명히 없다. 그러나 타락이 없었다면 정치제도 또한 불필요했을 것이라는 암시도 분명 없다. 분명한 것은 “문화명령”으로 알려진 것이다. 전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의 풍부한 다양성을 개발하고 보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사람이 문화명령에 반응해 나가는 것을(창4:20-22) 상상해 보면, 사회적인 결속을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인정된 의사결정기구나 행정기구가 필요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정의 형태나 부족 정치의 형태를 띠다가 결국 특정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제도로 진전되고, 나아가 국가 정치로까지 진전된 것이다.¹³⁾ 이렇게 본다면 에덴동산에 정부제도가 없었던 이유는 소수의 인구와 삶의 단순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 필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성(죄) 때문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피조성에 연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정치를

12) Alan Storkey, 앞의 글, p.126, 국가는 죄 때문에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13) Abraham Kuyper의 주장, R. Mouw, 1983, 앞의 글, 재인용.

필요악으로 간주해서는 안되고, 문화발전이라는 인간의 공동체적 소명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이 땅의 왕들이 새에루살렘에 그들의 영광과 만국의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계21:24-26).¹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정치 제도하에서 공동적 조직이 필요하게끔 인간의 삶을 구조화하셨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치는 타락 이후 불가피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창조 질서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강제 및 억압적 정치행위는 본래의 창조질서가 왜곡된 양상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규범)를 규명하여 억압적 현실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둘째,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

이원론(dualism)은 한마디로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을 혼동한 것이다. 선과 악(순종, 불순종)에 대한 구분을 창조의 구조 안에 있는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속받을 수 있는 부분과 구속받을 수 없는 부분이 본래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원론이다. 다시 말해 순종·구속·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삶의 한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의 방향을 강조하는 이중성(duality)이 성경에 의해 지지된다. 사람의 마음 상태와 삶 전체를 통해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이원론으로 변질하게 된 원인이 헬라철학(예: 플라톤의 영혼 대 육체, 이에 영향받은 어거스틴의 영원 대 순간)과 영지주의 때문이라 하겠

14) cf. Paul Marshall(1984)「기독교 세계관과 정치」한화룡 역, (서울 : IVP, 1989) p. 64.

다.

셋째, 영지주의와 이의 귀결인 침묵주의 및 행동주의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sojourner)의 삶으로만 규정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이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거주자(homesteader)의 삶으로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하나님의 나라)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알고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백성임을 계시해 주고 있다. 즉, 이 세상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다음 세상에서의 우리의 완성이 철저히 불연속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행동주의의 두 극단을 피하고, 정치에 대한 성경적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의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정치의 비판적인 참여자로 살 수 있고,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미 현존하고 계시며 정치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명백한 노선 정립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시각(성경적 세계관)에서 현실을 파악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원리)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목적과 접근 방법이 유사하다 하여 다른 세계관의 관점이나 전략 전술을 분별없이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already) 도래하였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므로 아직(not yet) 충만하여 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룩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정치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완성은 주님이 하신다.

여섯째, 정치문제와 관련된 성경 귀절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My Kingship is not of the world)”(요18:36)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불참여(non-involvement)의 정당한 근거로 삼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복음과 정치를 대립시키는 분리주의적 정치관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장의 원래 뜻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인간의 힘과 지원을 기초로 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 질서에서(헬라어로 에크 : εκ)나오는 것이 아니다.(not from this world order)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바르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권능은 기존 세상질서 안에 들어가 그 질서를 변혁시키는 것이다.(요3:17)¹⁵⁾

또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를 민중 중심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란 바로 정치적 상황이고, 예수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갔음은 예수가 민중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함이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수난당한

15) Paul Marshall (1984) 앞의 책, p. 74.

민중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복음과 정치를 혼동하는 혼합주의적 정치관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김영한 교수는 성경적 케리크마의 사회경제사적인 이데올로기화라고 반박한다.¹⁶⁾ 이 해석은 세례요한의 사역이 지니는 종교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예루살렘은 왕조 전승의 전통 뿐 아니라 메시아 도래의 전통과 더불어 야훼의 종말론적 도래의 표상을 지닌 곳이므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서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도외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

2) 실제적 차원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청종해야 한다. 동시에 성경이 현 정치의 근본적 구조와 방향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

올바른 정치인식태도 정립을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의 장기적 행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기초수준: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둔 기독교 정치적 심성(mind)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통된 기독교 정치적 입장이 부재한 이유는 문화활동 전반에 대한 공통된 기독교적 견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정치적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청회, 소그룹 토론, 대학의 교과과정 이용, 출판, 연구 세미나, 집담회 등을 통해서 심성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

16) cf. 김영한 “한국 교회의 성경해석과 설교의 유형론적 분석 및 문화 변혁주의적 착상” 한국교회문제연구원 편 「목회자와 설교」(서울: 품만, 1987) pp. 17~64.

람에게 복음과 정치와의 관계(또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를 잘 교육시켜 주어야 한다.

②중급수준: 공통적 기독교적 정치의식에 기초해서, 현존 정치제도(사상)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복합적이고 철저한 비판적 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문제점과 불의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작업은 각 영역의 전문가(역사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등)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선출한 정치가와 정당의 활동조사, 둘째, 신문·책·기타 자료들로 부터 현재의 정치체제가 기능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정보수집, 셋째, 세계개혁(실명제)·토지공개념·국방비·공해문제·주택·복지문제, 국가보안법 등 주요 이슈들을 토론하기 위한 대·소 그룹 형성, 넷째, 이원론적 사고를 다함께 극복함으로써 정치문제에 대해 모색하는 것, 다섯째, 우리의 자녀들을 세속적 심성 대신 기독교적 사고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 여섯째, 기독교 정치적 대안을 위한 운동에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게끔 인도하는 방침 모색, 일곱째, 전국에서 각기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연구 및 운동을 상호 조정하는 일이다. ③고급수준 : ①, ②의 수준에서 형성된 기독교 정치적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한다.

올바른 정치인식태도 정립을 위해서는 ①, ②, ③ 수준이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7) James Skillen, 앞의 글, p.177~184.